

제주 대중교통 환승시간 13분… 꿀씨 수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대중교통 현황 조사
체계 개편 전 보다 길어져… 전국 평균 시간 7.6분
운전자 친절도와 배차시간 간격은 낮은 평가 받아

제주지역 버스 환승(이용객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는 것) 소요 시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내 62개 법정동 중 '최소 수준의 버스 접근성 기준과 버스 운행 횟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내에서 평일에 버스를 이용한 승객들이 버스를 갈아타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3.3분이다. 이는 강원도(14.8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소요시간으로, 전국 평균(7.6분)과 비교해도 갑절가량 길다. 제주지역 버스 환승 소요 시간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인 2017년 도내 버스 환승 소요시간은 평균 11.2분이었지만, 이듬해 13.2분, 지난해 13.3분으로 2년 사이 8.7% 증가했다. 대중교통 최소 서비스 수준은 낙 제점에 가까웠다.

공단 측은 전국 법정동과 법정리를 상대로 대중교통 접근성과 운행 횟수를 살펴 이용객이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법정동의 경우 ▴버스정류장 영향권(400m)에 놓인 도로가 전체 도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특정 노선이 시간당 2회 이상 운행하는 등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보된 '확보 지역'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도내 62개 법정동 중 '확보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취약지역은 41곳, 둘다 충족 못한 '사각지역'은 21곳이었다. 이렇게 법정동 기준으로 확보지역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제주와 강원 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도시·

농촌 복합도시 성격을 띤 법정동이 많은 바람에 운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노선들이 그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었다"면서 "이런 영향으로 대중교통 최소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 후 이용객과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위안거리다. 도내 대중교통 이용 인원이 개편 이전과 비교해 2년 사이 17% 늘어 전국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만족도는 전년 4.72점(7점 만점)에서 4.85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18개 이용객 만족 평가 항목 중 배차 시간 간격과 버스 운전기사 친절도, 혼잡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공단 측은 최우선적으로 해당 항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공공 와이파이 6월부터 백록담서도 '광광'도, 정상·윗세오름·진달래밭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6월 중으로 한라산 정상을 비롯한 윗세오름 휴게소, 성판악 진달래 휴게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은 사계절 내내 도민과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 제주도의 상징적인 관광명소이지만 통신기반 시설이 없는 등의 다양한 문제로 와이파이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통신사와의 협력으로 통신기반시설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해 한라산 등반객에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유·도향선, 버스, 해안도로, 도서지역(우도, 추자), 버스, 정류소, 관광명소 등 도내 전 지역을 아우르는 공공 와이파이존을 확대, 무료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에 최신 와이파이 기술인 WiFi6를 시범적으로 구축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WiFi6는 저전력, 저지연, 초고속 통신으로 안정성이 높고 다양한 IOT 서비스 융합에 강한 차세대 기술 표준으로 최근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다. 제주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2024년까지 6000개 지점에 설치를 목표로 주요 관광지, 공원 등 도내 전지역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해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ICT기술을 융합한 제주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도는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및 부가서비스를 통해 올해 지난 1월부터 5월 19일까지 접속자 40만6000명(내국인 39만5000명, 외국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수칙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일반음식점 둔갑 라이브카페 단속

제주시, 연동·대학로 주변

제주시는 6월 한달간 제주시 연동 일대와 대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라이브카페 또는 바(bar) 형태의 업소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업종 위반(유형점 등) 행위와 위생 점검·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일반음식점이 음향·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 취미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해接客하는지를 살필 계획"이라며 "위반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일반음식점 업종 위반행위 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지적장애인 추행 50대 실태

지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태이 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제주시 삼도1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낸 10대 지적장애에 3급의 피해자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상민기자

100kg 상괭이 사체 발견

주자면 해안에서 멸종 위기종 돌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20분쯤 제주시 추자면 모진이해수욕장 탈의실 앞 쪽에 돌고래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돌고래는 몸길이 135cm, 둘레 113cm, 무게 100kg 가량의 상괭이로 확인됐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상괭이 사체는 부패가 진행 중이었으며, 압수 판별을 할 수 없었다고 제주해경은 전했다. 이상민기자



안갯속 출근길 25일 오전 짙은 안개가 낀 제주시 연북로에서 운전자들이 라이트를 켜며 서행운행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차별 찾아나설 것”

민노총 권리찾기 대행진

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까지 3일간 제주도내에서 '2020년 차별철폐-권리찾기 대행진'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코로나19 앞에서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

거나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무급휴직과 부당해고 등으로 생존권 사각지대로 내몰렸다"며 "일자리, 임금, 소득, 생계 등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취업규칙 게시, 임금명세서 교부, 연차휴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저임금과 초과수당 미지급 등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고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민낯과 차별,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노동법 적용,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국 순회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다혜기자

기관고장 구조 요청 선장 음주운항 들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낮 12시17분쯤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어선 A호(3.8t, 승선원 2명) 선장 B(63)씨를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24일 오후 8시7분쯤 서귀포시 태흥리 약 1km 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해경에 구조 요청했고,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민간어선이 출동해 위미항

까지 예인했다. 예인 과정에서 어선 A호에 승선한 경찰관이 승선원 중 1명이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선원명부 대조 후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영총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칼슘비료+코코리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N20 60일 공급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토양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일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달팽이추출물 해충 물리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앞은 먹음 형성에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엑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NAVER D2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 · 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엽면시비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시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시시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